

◆ [Focus] 중국 레거시 반도체 생산역량에 대한 주요 반응

◆ [What's News]

- (반도체) 인텔의 파운드리 기업 인수 계약, 중국 승인 거부로 무산
- (무역규제) 민주 상원의원, 반덤핑·상계관세 조사에 정치적 중립 촉구
- (인프라) '바이 아메리카' 최종 지침 발표, 미국산 사용요건 강화
- (IRA) 백악관, IRA 1주년 기념 주요 성과 팩트시트 발표
- (투자유치) 중국,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추진

◆ [Top Headlines] 주요 언론사 오늘의 헤드라인

FOCUS

(반도체) 중국 레거시 반도체 생산역량에 대한 주요 반응

1. 개요

□ 중국산 레거시*(legacy) 반도체 관련 논의

- * 28나노 이상의 성숙 공정으로 제작된 반도체로, 전체 반도체 시장 제품의 75% 비중 차지
- 미 상무장관은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 초과 공급 가능성에 대해 우려 표명
 - AEI 행사에서 패널로 참석한 상무장관은 '중국 정부의 보조금으로 인해 레거시 반도체 칩 초과 공급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이는 동맹과 함께 해결방안을 고민할 문제'라고 발언(7.26)

2. 상세

□ 중국은 미국의 수출통제에 대응, 기술 국산화·공급망 다각화 시도

- 중국 관세청, 전년 대비 20% 이상 감소한 반도체 관련 수입액 발표
 - 중국의 '23년 상반기 반도체 칩 수입액은 전년 比 22% 감소했으며, 반도체 제조 장비 수입액은 전년 比 23% 감소 기록

<중국의 국가별 반도체 수입액 동향>

(기준: 1~5월, 단위: 10억 달러)

순위	국가	연도		전년 비 증감률 (%)
		2022	2023	
1	대만	66.44	51.07	▽23.13
2	대한민국	36.12	24.53	▽32.09
3	말레이시아	12.51	8.73	▽30.22
4	일본	7.95	8.59	△8.05
5	베트남	6.34	4.94	▽22.08
6	미국	5.06	3.20	▽36.76
7	필리핀	3.69	2.93	▽20.6
8	태국	3.06	2.51	▽17.97
9	싱가포르	2.88	2.00	▽30.56
10	아일랜드	3.33	1.72	▽48.35

[자료: China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, WSJ 가공]

○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 칩 생산역량은 강화 중

- 첨단 반도체 부문에서 경쟁력이 감소한 중국은 반도체 산업 내 영향력 확대를 위해 범용 전자제품에 필수인 구형 반도체 생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(블룸버그)
- 반도체 제조장비업체 ASML이 대중 판매 증가로 인한 2분기 매출 27% 증가를 두고, 중국이 구형 반도체 제조 장비를 적극적으로 수급 중인 것으로 분석
- 신규 건설·시설 확장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, '26년까지 중국에서 가장 많은 반도체 제조시설이 신규 가동될 것으로 전망(SEMI)

<국가별 신규 건설·시설 확장 후 가동될 반도체 제조시설 동향>

(기준: '22~'26년)

순위	국가	반도체 칩별 구분	
		300mm	200mm
1	중국	22	4
2	대만	18	1
3	아메리카 대륙	11	5
4	유럽, 중동, 아프리카	11	5
5	일본	7	2
6	동남아시아	3	3
7	대한민국	4	0

[자료: SEMI World Fab Forecast, 블룸버그 가공]

3. 현지 반응 및 전망

- 현지 기관이 전망하는 중국의 구형 반도체 생산역량

- 대만과 중국이 향후 5년 동안 20~45nm 글로벌 파운드리 비중의 80%*를 차지하고, 중국은 향후 10년 내 50~180nm 글로벌 파운드리 비중의 약 46%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(Rhodium Group)

* 대만과 중국의 비중을 각각 39%, 41% 정도로 추정

- 중국의 저마진·대량 생산 전략이 과거에는 미 기업들이 중국에서 값싼 구형 칩을 조달하고 최첨단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했으나, 최근에는 미 정부의 공급망 의존도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
- 일부 언론은 중국 내 외국 기업의 생산 시설에 대한 '22.10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추가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

■ 작성자	워싱턴무역관 이준성
■ 자료원	월스트리트저널(7.31), 블룸버그(7.26, 7.31), 로디움 그룹(4.4) 등

□ **[반도체] 인텔의 파운드리 기업 인수 계약, 중국 승인 거부로 무산**

- (개요) 인텔은 파운드리 기업인 타워 세미컨덕터(Tower Semiconductor) 인수를 시도했으나, 중국의 승인 거부로 무산(8.16)
 - 총 54억 달러 규모의 인수 계약 취소로, 인텔은 해지 수수료로 타워 세미컨덕터 측에 3억 5,300만 달러를 지급할 예정
- (상세) 주요 언론은 중국이 반도체 기업 간 인수·합병에 이해관계국의 승인이 요구되는 조항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
 - 인텔은 올해 1분기 완료 예정이었던 인수 계획을 8.15까지 연장하고 CEO의 중국 방문도 추진했지만, 중국은 마감일까지 승인을 거절
 - 일부 전문가는 양국 관계 악화로 중국이 미 기업에 대한 각종 승인을 지연·거부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

▪ 작성자	워싱턴무역관 이준성
▪ 자료원	로이터(8.16), 뉴욕타임스(8.16)

□ **[무역규제] 민주 상원의원, 반덤핑·상계관세 조사에 정치적 중립 촉구**

- (개요) 브라운 상원의원*은 서한을 통해 상무부가 진행 중인 반덤핑·상계관세 조사에 대한 의견을 개진(8.14) * Sherrod Brown, D-OH
 - 일부 조사들이 언론 보도에 과하게 노출됨에 따라 정치·산업 이해관계자들이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
- (상세) (1) 주석 공장(Tin-mill) 제품과 (2) 관세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태양광 제품과 관련된 조사를 명시
 - (1) 주석 공장 제품 관련 반덤핑 청원(A-580-915)은 한국을 포함한 8개국에 적용되었으며, 한국의 덤핑마진은 13.28~110.5%
 - * 상무부 최종 판정: 23.9.11, ITC 최종 판정: 23.10.26, 발효시일: 23.11.2

- (2) 상무부는 중국이 ASEAN을 통해 태양광 패널을 우회 수출하여 반덤핑 관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예비 판정 결과를 발표('22.12)했으며, 최종 판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('23.8.18)
- *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('22.6)으로 ASEAN 4개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에 부과하는 반덤핑 관세를 2년간 면제했으며, 의회 반대에도 거부권 사용('23.5)

▪ 작성자	워싱턴무역관 이준성
▪ 자료원	상원의원실 보도자료(8.14), 인사이드 트레이드(8.15)

□ [인프라] '바이 아메리카' 최종 지침 발표, 미국산 사용요건 강화

- (개요) 백악관, '바이 아메리카' 최종 가이드라인 발표(8.14)
 - 바이든 대통령의 Investing in America로 제조 및 청정에너지 확대, 미국 인프라 재건 및 일자리 창출 노력 지속
 - 백악관 및 예산관리국(OMB)은 연방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미국산 제품 구매 강화 위한 '바이 아메리카(Buy America)' 최종 지침을 발표
 - * 올해 2월부터 약 2,000개의 공개 의견 수렴 후 최종 지침 발표
- (상세) 연방 인프라 프로젝트에 미국산 철, 강철, 건축 자재 사용 확대
 - 최종 지침은 연방자금이 투입되는 인프라 기반시설 프로젝트에서 미국산 제조품, 건축 자재, 철 및 강철을 강화하고 법적 요구사항을 반영
 - * 기반 시설법에는 도로, 교량 및 주요 프로젝트를 위한 1,100억 달러, 철도 660억 달러, 수자원 인프라에 550억 달러, 광대역 인프라 보조금에 420억 달러 등
 - 또한, 건설 자재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고 인프라 투자를 통한 국내 생산 확대, 건설 및 제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 강조
 - 건식 벽체, 유리, 목재, 플라스틱 및 폴리머 기반 제품에 대한 제조 표준을 설정했으며 미국산 제품이 충분하지 않거나 미국산 사용으로 전체 프로젝트 비용이 25%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면제 요청 가능
 - * 제조품은 미국에서 제조되어야 하며 미국산 부품 가격은 모든 구성 요소 비용의 55% 이상

- (반응) 철강 노동자와 제조업체는 환영, 일부 반대 목소리도 제기
 - 철강 노동자와 제조업체 대표 그룹은 이번 최종 지침 발표 환영, 국가 안보, 경제, 청정경제 모두 외국산 의존도 감축 노력 강조
 - 글로벌기술그룹(ITI)은 이번 지침으로 광대역 액세스, 식수, 교통 등 일부 인프라 프로젝트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비판 목소리 개진
 - 한편, 전미전기제조협회 등 7개 미국 전기제조업 단체도 서한(8.3)에서 '바이 아메리카법'의 지침과 다른 법안(IIJA, IRA, CSA) 간 상충되는 우선순위 요구사항을 지적

▪ 작성자	워싱턴무역관 김준희
▪ 자료원	백악관(8.14), 로이터(8.14), 인사이드트레이드(8.8), 전기제조협회 서한(8.3) OMB 바이아메리카 규정원문(8.14)

□ (IRA) 백악관, IRA 1주년 기념 주요 성과 발표

- (개요) 바이든 행정부, 인플레이션 감축법(IRA) 발효 1년 이후 미국 내 투자·일자리 증가세 발표(8.16)
 - 백악관은 IRA가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경제정책 의제인 '미국으로 투자'(Investing in America)의 성과라고 강조
- (상세) 기후변화 대응, 청정에너지 산업, 일자리 증가, 의료보험 혜택, 공정 과세와 관련한 IRA 성과를 집중적으로 보도
 - (투자) 신규 청정에너지 제조 분야에 약 1,100억 달러 규모 투자 발생
 - * 전기자동차(EV) 공급망에 총 700억 달러, 태양광 제조 관련 100억 달러 등
 - (에너지) '22~'30년 동안 미국 가정의 전기 요금이 약 270~380억 달러 절약될 것으로 전망
 - (일자리) 청정에너지·기후 조항으로 17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됐으며, 향후 10년 동안 150만 개 이상의 추가 일자리 확보를 예상

▪ 작성자	워싱턴무역관 정연호
▪ 자료원	백악관(8.16)

□ [투자유치] 중국,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추진

- (개요) 중국 국무원, 외국인 투자 환경 제고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(8.13)
 - 가이드라인은 외자에 대한 보호 강화 등 6가지 목표 달성을 위한 24가지 정책 방향으로 구성
 - 외자유치 확대는 중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진핑 주석의 주요 정책인 가운데, 올 2분기 중국 외자유치는 25년만 최저 기록
- (상세) ①외자 활용 제고, ②외투기업 내국인 대우 보장, ③외자 보호 강화, ④투자·운영 촉진, ⑤재정·세제 지원 강화, ⑥투자유치 활동 개선 등으로 구성
 - R&D, 생명공학, 첨단 제조업, 디지털 산업 등 주요 분야 유치 추진
 - 정부조달 등에서 외투기업의 참여를 보장하고, 국가 안보 관련 사유나 법적으로 금지되어있지 않는 한 외투기업도 정책지원 대상으로 포함
 - 주요 외투 프로젝트 활성화 위한 지방정부 외국인 투자유치 기금 활용, 재투자에 대한 원천소득세 면제 등 세제혜택 확대 추진

▪ 작성자 | 워싱턴무역관 장석일

▪ 자료원 | 중국 국무원(8.13), 로이터(8.13), 인사이드트레이드(8.15) 등

Top Headlines

언론사	주요 보도내역
The Wall Street Journal	<p>Bond Yield Hits Highest Since 2008, Adding Pressure to Borrowing Costs (2008년 이후 최고점 찍은 채권수익률, 대출 비용 상승 압력 가중) 미 10년물 국채 수익률, 최근 15년 최고 수준인 4.258% 기록. 10년물과 관련도가 높은 주택담보 대출이 같이 상승세를 기록할 수 있어</p>
The Washington Post	<p>You should be watching bad economic news out of China (중국발 '경제 비보' 주의해야) 중국 주택 시장의 예상보다 빠른 침체, 소매판매 및 생산·투자 부진, 16-24세 인구의 역대 최대 실업률 달성 등 중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 뉴스가 이어지고 있어</p>
The New York Times	<p>Drastic Economic Moves Highlight Russia's Wartime Bind (과감한 경제 정책 속 느껴지는 러시아의 고뇌) 러시아, 최근 10년 중 세 번째로 큰 규모의 금리 인상 단행. 인플레이션 완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비용 총당 등 상반된 사안 동시 달성이 가능할지 향후 귀추 주목</p>
CNN	<p>Fed officials fretted US inflation might not cool further unless economy slows down (연준 "경제 냉각 없이는 인플레 완화 없을 수도") 7월 연준 회의록, 과열된 미 경제 및 노동시장의 냉각 없이는 인플레 완화가 없을 수 있다는 우려 담겨 있어. 9월 금리 인상 카드, 수면 위로 다시 부상.</p>

* 미국 동부시간 8월 16일 16시 기준

Notice

□ 주요 경제·통상 일정

8.16(수)	7월 연준 FOMC 회의록(FOMC minutes of July meeting)
	7월 신규 주택착공·허가건수(Building Permits)
8.17(목)	8월 2주 초기실업수당 청구 건수(Initial Jobless Claims)
	8월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조사 (Philadelphia Fed manufacturing survey)

□ **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**

◆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, **경제통상리포트** (과거 리포트 : [☞헤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☜](#))

발간번호	제목 (※클릭하면 이동합니다)	발간시기
US23-24	바이든 행정부의 청정 수소 전략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	2023.08월
US23-23	해외투자 심사 관련 상원 법안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	2023.07월
US23-22	희귀광물 갈륨·게르마늄 공급망 분석	2023.07월
US23-21	IPEF 4차 협상 주요 내용 및 현지 기관 분석	2023.07월
US23-20	최근 미국의 대중 수입 통계로 보는 변화	2023.06월
US23-19	美 재무부 IRA 전기차 세액공제 가이드스 의견서 주요내용	2023.06월
US23-18	RE100, 회원사 재생에너지 전환 성과 분석	2023.06월
US23-17	IPEF 5월 장관회의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	2023.06월

◆ 경제통상 이슈에 대한 워싱턴무역관 심층 르포, **기획조사** (과거 보고서 : [☞헤드림 심층보고서☜](#))

발간번호	제목 (※클릭하면 이동합니다)	발간시기
US22-기 획7	미국의 바이오제약 산업 육성 정책과 시사점	2023.01월
US22-기 획6	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본 미국 에너지·기후변화 정책 심층 분석 및 시사점	2022.12월
US22-기 획5	2022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 분석 및 시사점	2022.12월
US22-기 획4	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동향 및 시사점	2022.11월

◆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, **코트라 인터뷰 시리즈** (과거 인터뷰 : [☞유튜브 KOTRA TV☜](#))

인터뷰번호	제목	바로가기
코인시-14 (2023.6.30)	 <p>전미자동차연구센터(CAR) '앨런 아메라' 대표 인터뷰 자동차 업계를 둘러싼 글로벌 지정학 경쟁과 향후 전망과 미래</p>	
코인시-13 (2023.6.26)	 <p>전 미국 국방부 안보 차관보 '켄달 스투리버' 인터뷰 경제 안보 관점에서 본 글로벌 공급망 재편!</p>	